

광주교육청, 시민 모두가 주인 되는 학교 만들기 전국 최초 '시민참여담당관' 설치



1 공간 수업 프로젝트 사례 발표회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휘국 교육감 2 장 교육감이 학생들과 실습을 하고있다. 3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있는 장휘국 교육감

광주교육청은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꿈꾼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고르게 누리며, 각자의 꿈을 키우는 교육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직선 3기에 접어든 광주시교육청은 무엇보다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교육행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담당관을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했다.

특히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모든 시민이 주체적으로 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평가할 수 있는 협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학교공동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자치조례를 시행해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 회의 자치권도 키웠다.

보편적 교육복지는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에는 2010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후 9년 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유치원으로 확대해 공·사립 유치원 29개원에 중식비를 지원한다.



2



3

불리한 여건에 있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담임교사가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광주 희망 교실도 큰 성과를 냈다. 참여 학생이 20만명이 넘고 현장 중심 교육복지 우수 모델로 인정받아 서울·대전·세종·부산 교육청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배움 중심의 교육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진로 진학 체험 '꿈꾸는 공작소'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드림 러너'를 운영하고 있다.

질문이 있는 교실을 비롯해 학생 참여형 수업도 강화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교원수업

나눔 운동과 함께 올해부터 단위학교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새롭게 구축해 수업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 수업·평가 지원단을 운영해 학생 참여 수업을 유도하고, 단위학교의 우수사례를 전체 학교로 확산시켰다.

광주다운 교육 실현을 위해 5·18 교육 전국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교원 500명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고, 전국 108개 학교(422학급)에 '오월강사단'을 파견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학생 희생자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참여 학생 조사 및 자료 발굴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 5·18기념재단 등과 5·18 민주화운동 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정의로운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며, 미래사회의 주인은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서 "광주다운 교육을 꾸준히 펼쳐 광주 학생들과 함께 민주와 인권,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